

현대차그룹, 이라크 환아들에 희망 선물

심장병·안구손상 환자 수술·치료 지원

현대차그룹은 이라크 심장병 어린이 환자 2명과 안구 손상 환자 1명을 한국에 초청해 정밀검사를 받게 하고 수술 등의 치료를 지원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지난 10월 15일과 21일 두 번에 걸쳐 입국한 이들 3명은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과 경기도 부천 세종병원 두 곳으로 나누어 정밀검사와 수술을 받았다. 오는 12월에도 심장병 환자 4명이 이라크에서 추가로 입국해 치료를 받는다.

이라크 환아 의료 지원은 현대차그룹이 한국이라크우호재단과 연계해 한국에서 무료로 수술을 받게 하고 희망을 안겨주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지난 2013년 이라크 심장병 환아와 보호자 등 22명을 불러 3주간 치료를 지원한 바 있다.



정진행 현대건설 부회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과 한병도 이라크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앞줄 왼쪽 네 번째)이 이라크에서 온 환자 및 보호자, 국영방송 취재진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의료 지원 행사 및 현대차그룹 사업장 견학은 지난 1월 한국·이라크 수교 30주년을 맞아 진행된 정부 외교 특사단의 이라크 방문과 그간 현지에서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현

대건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됐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사회공헌(CSR) 활동을 펴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차량 화재, BMW만 문제인가



기지 수첩

양성운 (산업부)

최근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언론은 물론 각종 커뮤니티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유독 BMW 화재에만 예민하다. 매년 약 5000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한다. 이를 하루로 나누면 일 평균 15대 정도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수입차뿐 아니라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 등에서도 화재가 발생한다.

특히 현대·기아차의 경우 상용차에서 차량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포터나 봉고의 경우 개인 사업자들이 트럭 뒷부분 등을 개조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다"며 "차량 관리를 제때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근 발생한 BMW 차량 화재도 비슷하다. 10월 28일 화재가 난 BMW 530d GT 차량은 주행 거리가 30만km를 넘은 노후 차량으로 화재 전 점검에서 엔진 오일이 흘러나왔다. 해당 차량은 EGR 리콜 대상 차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화재가 난 차량(640d)은

이미 EGR 밸브의 리콜을 진행한 차량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지난 10월 초 태풍에 차량이 침수돼 전손 처리된 차량을 외부 수리업체에서 무리하게 수리해 운행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화재가 난 차량(525d xDrive) 역시 리콜 수리가 완료된 차량으로 화재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짧은 기간 차량 소유자가 여러 차례 변경됐다는 점에서 노후한 매연저감장치 등 다양한 가능성이 원인으로 제기된다.

문제는 BMW와 정부 기관이 이번 차량 화재 원인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EGR 때문에 단정짓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BMW 차량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는 물론 기존 고객들도 화재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부분은 가볍게 넘어갈 수 없지만 전문가들의 정밀 조사를 통해 화재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 뒤 책임 소재를 묻는 자세도 필요하다. 운전자도 자동차 안전 점검은 필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자동차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ysw@metroseoul.co.kr

SKT, 30년 장기고객 초청 '미식행사'

SK텔레콤은 'T멤버십' 이용자와 만 30년 이상 이동통신 가입고객을 초청해 호텔 식사 및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미식행사 '테이블' 이벤트를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테이블' 이벤트는 '미식과 공연의 만남'이다. 2014년부터 국내 통신사로는 유일하게 T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식사 및 공연 관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5년 간 총 9만3000여명 고객이 미술관 셰프의 요리,

전국 100개 레스토랑 식사 등과 공연 관람을 경험했다.

올해는 테이블 행사 6년째로, T멤버십 이용자와 동반자 1인을 포함해 1000명을 초청하는 '테이블2019'와 함께 만 30년 이상 가입고객 전원과 동반자 1인을 초청하는 'T아너스 테이블'도 별도로 진행한다.

참가 응모는 T멤버십에 가입하면 누구나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T멤버십 전용 애플

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고객 중 추첨으로 선정된 500명은 동반자 1인과 함께 호텔 코스요리와 가수 이문세의 공연 관람 혜택을 즐길 수 있다.

'T아너스 테이블' 행사는 만 30년 이상 가입고객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30년 이상 가입고객과 동반자 1인을 초청해 12월 20일과 21일, 점심과 저녁 4차례로 나눠 호텔 식사와 함께 미스트롯 5인의 공연이나 이선희, 신승훈, 홍진영의 공연을 선택해 즐길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오늘의 운세 11월 1일 (음 10월 5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생각을 바꾸면 행동하기 편하다. 48년생 여유 있게 영화 한편 보기 좋은 날. 60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 72년생 원칙을 벗어난 투자는 금물. 84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 소** 37년생 신세 졌던 사람에게 빚을 갚는 날. 49년생 작은 부주의로 큰 계약을 망칠 수 있다. 61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주변 조언을 구하라. 73년생 직장후배와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 85년생 근거 없는 칭찬에 휘둘리지 마라.
- 호랑이** 38년생 증여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 50년생 사고의 폭을 넓혀야 바로 볼 수 있다. 62년생 새로운 일이 기대만큼 실리가 없다. 74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다. 86년생 격한 말로 상대를 공격하면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
- 토끼** 39년생 재할용으로 경제적 손실을 만회. 51년생 가족보다 친구의 위로가 더 그림다. 63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겁다. 75년생 상대의 단점을 건드려서 좋을 것이 없다. 87년생 기다리던 문서라도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 용** 40년생 사랑 믿음 소망을 갖고 살자. 52년생 새로운 계약으로 좋은 기회를 만드는 날. 64년생 언제나 병 주고 약 주는 친구가 많상. 76년생 머리만 믿지 말고 노력을 하라. 88년생 지치고 피곤한 날이니 부모님의 도움을 받자.
- 뱀** 41년생 전소하려는 배우자가 그림다. 53년생 산들바람이 불어오니 하는 일도 시원. 65년생 아제의 동자가 오늘은 적이 되어 온다. 77년생 오랜 기다림으로 마음이 아프다. 89년생 재물로 성과를 내서 또한 명예가 높아진다.

- 말** 42년생 남의 흉을 감추주면 나에게 유리. 54년생 진취적 행동이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66년생 좋은 재물취득의 정보가 들어온다. 78년생 유혹이 있어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90년생 진인사대천명이나 최선을 다해라.
- 양** 43년생 길 떠나려는데 지팡이가 부러진다. 55년생 시작이 좋으니 결과도 좋다. 67년생 다툼이 생기기 쉬운 날이니 자중하라. 79년생 들떠있는 거품은 곧 사라지니 현실에 직면해야. 91년생 다소 무리일지라도 도전을 해 보자.
- 원숭이** 44년생 항상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하는 법. 56년생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 68년생 자식은 도움을 줘도 당연시하니 마음을 비워라. 80년생 아랫사람이 길을 터주니 훨씬 수월. 92년생 선택은 자유지만 책임을 반드시 저야 한다.
- 닭** 45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일을 하라. 57년생 가족이 가장 소중하니 친구보다 우선. 69년생 타인을 배려하면 내게도 이익. 81년생 고단한 삶이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 93년생 좋은 일은 많은 사람에게 자랑해도 될 터.
- 개** 46년생 붉은색 숫자 7이 행운을 준다. 58년생 지금 선택이 내일을 기쁘게 한다. 70년생 혼자보다는 뒷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 때. 82년생 동료와 협력이 좋은 성과를 낸다. 94년생 갈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 돼지** 47년생 집 나간 말이 가족을 일러서 돌아오니 이익. 59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온다. 71년생 바람이 불어오니 방향이 시작. 83년생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과정도 무시된다. 95년생 오로지 참는 것이 불운을 극복하는 방법.

김상희의四季 때를 맞추면 풀린다

단풍이 물들었다. 산자락을 곱게 장식한 단풍이 TV를 타기 시작하면 주변에서는 단풍놀이 가지는 말이 부쩍 많아진다. 겨울도 멀지 않다는 의미이다.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고 산간지방에는 얼음이 언 곳까지 있다.

단풍놀이는 가을이 되어야 가능하고 눈싸움은 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어야 할 수 있다. 그런데 단풍놀이를 봄에 가겠다고 하거나 눈싸움을 한여름에 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자연의 흐름인 계절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도 그에 맞는 시기가 각각 있다.

결혼할 때는 두 사람의 사주에 따라 좋은 때가 언제인지 봐야 한다. 사업은 시작하는 시점의 운세에 따라 재물의 향방이 달라진다. 그래서 인륜지대사인 결혼은 좋은 날을 택일하려는 사람들의 상담이 끊이지 않고 사업을 할 때는 운세를 묻는 사람들이 많다.

결혼은 당장 혼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일이 더 중요하다. 어떤 결혼생활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기 때문이다. 한 해를 더 기다려야 결별 수를 피할 수 있다는데 그때 결혼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불행을 불러들이는 그때의 선택이다.

필자에게는 운세가 꺾이는 시기인데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운이 꺾이는 시기에 사업을 펼치면 인생을 높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 결혼이나 사업은 인생 전체가 걸린 일이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때가 중요하고 더구나 큰일을 앞왔을 땐 꼭 운세와 맞는 때를 찾아야 한다. 세상일은 좋은 때가 따로 있고 운세가 조화를 이루는 시기가 바로 그때이다. 때만 맞추면 어떤 일이든 절반은 풀린 것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5			
	4	6			7			2
1			4		5			8
6			5			2	1	
	3	4						9
			2			3		6
		2		5	8			3
8	6			4			2	
			1		6		8	

	1	5	7				4	2	3
9						3			
2	5	7				8	3	1	
4			5			6			9
	9	6						8	5
	2		1		5			4	
3		8		6		1			5

스도쿠 정답								
6	8	9	2	1	5	2	4	8
1	2	5	8	7	4	6	9	3
5	9	1	8	5	6	2	1	7
9	7	4	6	8	2	1	5	3
5	6	8	1	9	7	4	2	3
2	1	2	7	5	8	6	9	1
8	4	6	5	9	7	4	2	1
2	5	1	4	6	8	9	7	3
7	5	9	2	1	4	8	6	3
5	6	1	2	9	7	8	4	3
8	7	9	5	1	6	2	3	4
2	4	7	6	8	1	9	5	3
7	5	8	2	4	9	6	1	3
6	2	9	1	5	8	7	3	4
9	1	4	8	7	6	2	5	3
1	8	5	4	2	9	7	3	6
4	2	7	6	8	2	5	1	9
2	9	6	1	5	7	3	4	8

문제 제공= 보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1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17호